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연준, 금리 인하 폭 0.25%가 충분할지 결정해야 한다
- CNNBusiness: 미 고용주 채용을 원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미국 금융]

- WSJ: 9월은 미 증시에 다시 한번 힘들 기간

[미국 대선]

- MSN: NYT 전국 여론 조사 결과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

[미국 생활]

- CNNBusiness: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종 중 한 가지는?

[글로벌 경제]

- WSJ: 일본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제 성장세
- Bloomberg: 중국 디플레이션,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어
- Bloomberg: 중국, 2024년 탄소 시장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포함

[인공지능]

- Reuters: 미국, AI와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보고 의무화 제안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AI가 애플의 아이폰 부진 해결책"
- NYT: 미국, 구글의 온라인 광고 지배력 제한
- WSJ: 할인 소매업체 Big Lots 파산 신청
- Reuters: 삼성 인도 공장 파업한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Fed must decide if quarter-point cut will be enough for workers

연준, 금리 인하 폭 0.25%가 충분할지 결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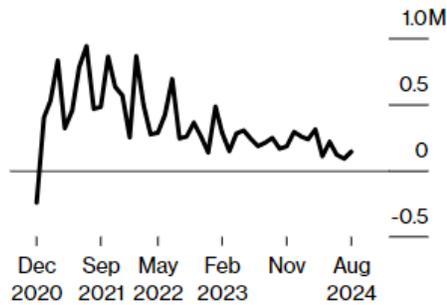
- 연준은 이달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0.25%의 금리 인하 폭이 경제 성장을 위해 충분한지 여부다.
-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일자리 보고서를 보면 지난 3개월간의 미 고용이 지난 2020년 팬데믹 이래 가장 낮았다. 오는 17일부터 양일간 회의를 통해 연준이 여전히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할지 투자자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 이번 연준 회의에서 인하 폭을 놓고 내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위험성은 높다. 파월 의장은 80년대 이래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너무 늦게 대응해 미국인들의 구매력을 약화시킨 실수를 했다. 이번에도 너무 늦게 대응할 경우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 금융 정책의 과거 전환기에서 볼 수 있듯이 연준 관리들은 금리 인하 폭을 놓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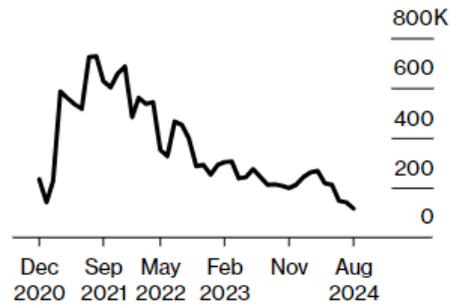
US Labor Market Weakening as Inflation Moderates

Fed must decide if quarter-point rate cut will be enough at upcoming mee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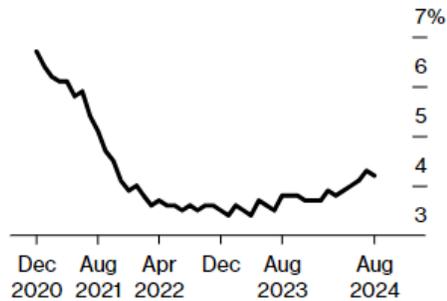
US nonfarm payroll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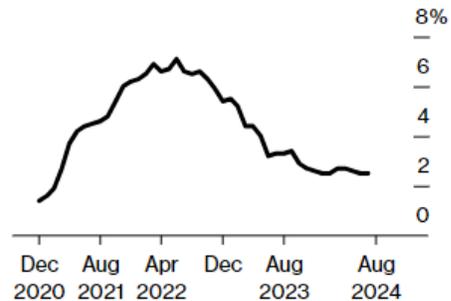
Payroll growth three-month average



US unemployment rate



US PCE inflation rate



Sources: Bureau of Labor Statistic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loomberg

Bloomberg 기사

CNNBusiness: Employers in America want to hire more workers. Just not right now

미 고용주 채용을 원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 현재 노동시장은 둔화되고 있다. 지난달에 실업률이 4.2%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지난 2021년 가을 이래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최근 수개월간 수년 전에 비해 채용을 줄이고 있으며, 채용 공고 숫자도 7월의 경우 지난 2021년 1월 이래 가장 낮다.
- 현재 기업들은 향후 수개월간의 불확실한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 누가 미 대통령이 될 것인지, 그리고 기업들의 차용 비용이 되는 금리 인

하 정책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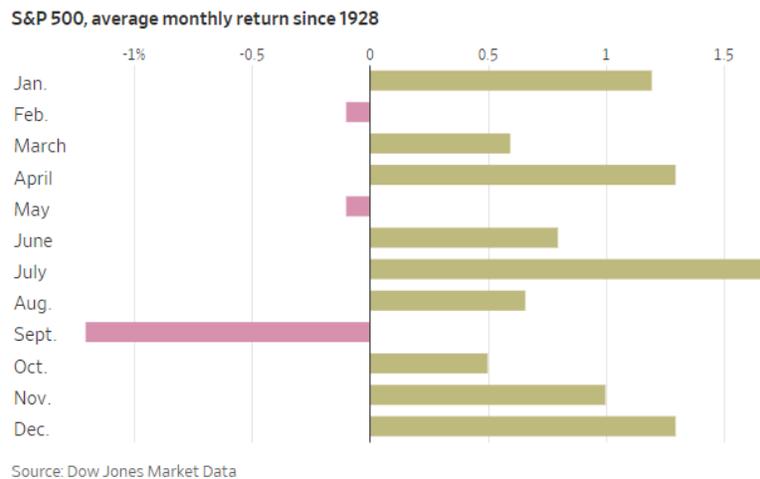
- ZipRecruiter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Julia Pollak은 금리 등이 인하되고 미국 경제의 동력이 되는 미국인 소비가 건강한 속도로 유지될 경우 고용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CNNBusiness 기사

[미국 금융]

WSJ: September Is Once Again a Tough Month for Stocks 9월은 증시에 다시 한번 힘들 기간

- 노동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지난 금요일 일자리 보고서 발표로 경제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주에 S&P500 지수는 4.2% 하락했다. 지난주 화요일 비즈니스 활동도 약세를 보여 증시에 타격을 주었다.
- 지난 192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S&P500은 9월에 평균 1.2% 하락해 월별로는 최악의 실적을 보여왔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지수는 이 기간에 56% 하락세로 마감했다.
- 투자자들은 수요일 인플레이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경제 지표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미국 대선]

MSN: Trump Pulls Ahead of Harri in Manjor National Poll NYT 전국 여론 조사 결과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

- 주요한 여론 조사로 알려진 뉴욕타임스와 Siena 컬리지의 미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보다 약간(a slim margin) 앞서고 있다.
- 지난 9월 3일부터 4일간 1천6백95명의 유권자 대상 조사에서 트럼프는 48%, 해리스는 47%로 1% 포인트 앞서고 있으며 유권자의 6%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 다른 후보자들의 포함할 경우 트럼프는 46%를 해리스의 44%보다 2% 포인트 앞서고 있으며 유권자 4%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 2%는 녹색당 후보 등을 지지하고 있다.

MSN 기사

[미국 생활]**CNNBusiness: This is one of America's hottest jobs right now****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종 중 한 가지는?**

- 미국 일자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일부 업종의 경우 이 같은 어려움과는 거리가 멀다. 헬스케어 분야는 일자리 창출의 선두 자리에 있다.
- 또한 지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살인 사건 이후 경찰관 채용 신청이 크게 줄고 은퇴가 많아 사람들이 경찰관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진 이후 최근 들어 경찰국은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 미국 일자리 공고는 2022년 3월 이래 크게 떨어졌는데 올해 7월까지 37% 감소했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주정부의 경우 이 기간 동안에 교육직을 빼고는 단지 7.6%만 감소했다. 법 집행 기관의 공고는 많은 상황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경찰관 평균 봉급은 37% 올랐다.

CNNBusiness 기사

[글로벌 경제]**WSJ: Japan Economy Grew on Spending Recovery, Revised Data****Confirms****일본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제 성장세**

- 일본 경제가 소비 회복 덕분에 올해 2분기의 경우 당초 예측과 거의 같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일본중앙은행이 조만간에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 실적 GDP는 2분기에 2.9% 상승했다고 정부는 수정 데이터에서 밝혔다. 지난 8월 중순 발표된 예상치는 3.1%였다. 그리고 경제가 1분기보다 0.7% 상승했다.

- 경제를 뒷받침 해주는 경제 지표와 관련해 소비지 지출은 1분기보다 0.9% 상승했다. 당초 추정치는 1.0% 상승치였다. 자본지출도 0.8% 상승했다. 당초 예상치는 0.9%였다.
-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3분기 GDP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 빠르면 오는 12월에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China's Deflationary Spiral Is Now Entering Dangerous New S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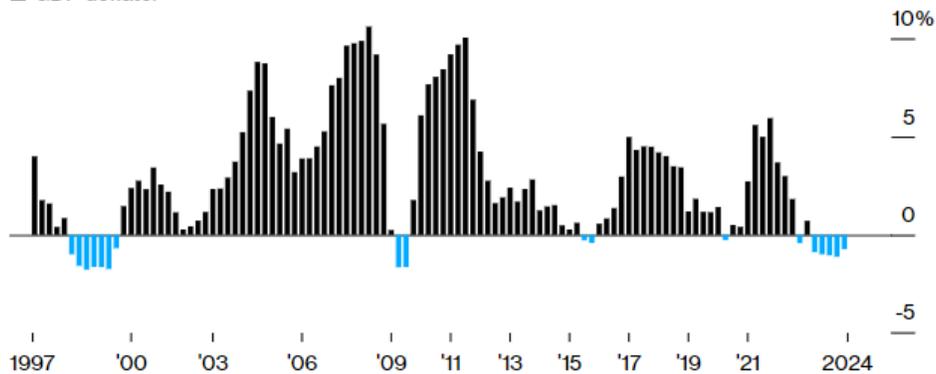
중국 디플레이션, 위험한 단계에 접어들어

- 작년부터 중국을 괴롭힌 디플레이션이 확산 조짐을 보인다. 오늘 월요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동시에 식료품비를 제외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경제 전반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1990년대 일본의 부동산과 금융 시장 거품이 꺼진 후 “잃어버린 수십 년”이라 불리는 경기 침체와 비슷한 사이클이다. 지난주 전 중앙은행 총재 Yi Gang은 디플레이션 근절이 정책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은 수요 약세 회복보다는 생산을 장려하는 해결책을 크게 바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디플레이션 예상이 시장에 퍼지면서 채권 랠리를 촉발해 수익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고, 은행이 금리 위험에 너무 노출됐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분기 중국 명목 GDP 성장률이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 목표인 5%에 못 미치는 4%인 것도 물가 약세 압력을 분명히 보여준다.

China's Economy-Wide Prices in Longest Decline Since 1999

Broad measure of prices contracts for fifth straight quarter in 2Q 2024

■ GDP deflator



Sourc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Bloomberg

Note: The GDP deflator is calculated by subtracting real GDP growth from nominal GDP growth.

Bloomberg 기사

Bloomberg: China to Add Steel, Aluminum and Cement to Carbon Market in 2024

중국, 2024년 탄소 시장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포함

-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Huang Runqiu은 주말 컨퍼런스에서 연말에 국가 탄소 거래 시장을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산업을 포함해 오염 배출량 감축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중국은 2030년까지 총배출량의 70%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생산업체는 탄소 배출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들겠지만, 중국 당국은 2026년 이후 EU가 부과할 새로운 탄소 관세 CMAM의 타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인공지능]

Reuters: US proposes requiring reporting for advanced AI, cloud providers

미국, AI와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보고 의무화 제안

- 연방 상무부는 월요일 AI개발자와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대해 기술 안전과 사이버 공격 대비를 확인하기 위해 상세한 보고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상무부 산업보안국의 제안에는 프론티어 AI 모델과 컴퓨팅 클러스터(작업 수행을 위해 단일 시스템으로 함께 작동하는 상호 연결된 컴퓨터 그룹) 개발 활동에 대한 보고 의무화와 사이버 보안 조치에 대한 보고 의무화가 담겨 있다.
- 2023년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 경제,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AI 개발자가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 안전 테스트 결과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었다.

Reuters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Apple Looks to AI to End iPhone Slump

"AI가 애플의 아이폰 부진 해결책"

- 아이폰16 라인업은 하드웨어 기능 추가보다 Apple Intelligence라는 AI 기능을 주요 포인트로 홍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BayStreet Research에 따르면 초기 판매 이후 AI는 소비자들 이 핸드폰을 바꿀 주요 포인트가 되지 못했다.

- AI 아이폰에 대한 수요는 AI기술에 대한 시장 선호도를 확인할 기회다. 애플은 6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많은 새로운 AI기능을 발표했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 선두 주자인 OpenAI와 협력해 ChatGPT를 탑재할 계획이다.
- 마지막 아이폰 히트작은 전년 대비 매출이 39% 증가한 2021년 모델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이폰 고객들은 업그레이드를 미뤘다. 일부 분석가들은 아이폰16보다 디자인이 변경될 아이폰17에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그때가 되면 AI기능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NYT: U.S. Prepares to Challenge Google's Online Ad Dominance 미국, 구글의 온라인 광고 지배력 제한

- 수년 동안 온라인 광고 시장을 지배한 구글이 광고기술 통제권 남용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됐다. 지난 8월 연방 판사는 별도의 소송에서 구글이 온라인 검색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판결한 적이 있다.
- 정부는 먼저 구글의 광고기술(ad tech) 사업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구글의 퍼블리셔용 광고 판매 도구가 미국 시장 87%를 장악하고 있고, 광고 판매 기술로 2021년에 약 317억달러의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구글의 지배력이 더 높은 가격을 초래하고 반독점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 반독점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법무부가 반독점 사건에 사용할 법적 주장을 테스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구글이 인수를 통해 지배력을 구축했다는 주장은 페이스북 모회사 Meta가 경쟁을 없애기 위해 초기 경쟁업체를 인수했다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주장을 반영한 사례이다.

NYT 기사

WSJ: Discount Retailer Big Lots Files for Bankruptcy 할인 소매업체 Big Lots 파산 신청

- 미국 할인 소매업체 Big Lots가 파산 신청을 하고, 사모펀드 Nexus Capital Management에 사업을 매각하기로 했다. 팬데믹 이후 소비자 지출 감소로 피해를 본 최신 사례가 됐다.
- 가구 및 홈 인테리어 소매업체 Big Lots는 2022년 이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Big Lots는 구조조정과 매각을 통해 7억7천750만달러를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 몇 달 전 팬데믹으로 인한 소매업 파산의 또 다른 예로 레스토랑 부문의 레드 랍스터가 있었다. S&P 글로벌은 "2024년 7월 16일까지 총 21건의 소매업 파산 신청이 있었다. 2020년 이후 동기 대비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밝

했다. 최근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8월 소매업 부문에서 1만1천1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WSJ 기사

Reuters: Workers at Samsung India plant strike, partly hitting production 삼성 인도 공장 파업한다

- 인도 남부 삼성전자 공장에서 수백 명의 근로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8월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된 후 임금 인상과 보너스를 요구하며 나흘간 파업을 벌인 이후 발생했다.
- 삼성은 Chennai시 인근 Sriperumbudur 공장에서 2,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해 냉장고와 세탁기를 생산하고 있다. 업계 소식통은 많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일일 생산량의 절반 정도가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 삼성 인도 노조를 이끄는 E. Muthukumar는 임금 인상과 근무 시간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삼성 인도 대변인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uters 기사

좋은 시절 다 갔나...8월 이후 급격히 흔들린 美증시 앞날은 "금리인하, 대선 등으로 향후 변동성 높아" vs "위기는 일시적" 최근 미·신흥시장 기업, 달러 표시 채권 대거 발행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에 즐거워하던 미국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8월 이후 큰 등락을 겪으면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도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와 대통령 선거 등 변동성을 높일만한 요인이 대기하고 있는 데다 유럽의 정치적 혼란, 대형 기술주에 대한 쓸림 등 시장에 부담이 될만한 이슈들이 남아있어 '좋은 시절은 다 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거침없던 주식시장 랠리는 8월 초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한순간에 꺾였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